



회화에서 진행되던 이러한 탐구는 자연스럽게 퍼포먼스와 설치로 이어졌다. 평면의 레이어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시간의 움직임이나 존재의 떨림 같은 것들을 신체와 공간을 통해 다시 다루려고 했기 때문이다. 퍼포먼스는 한 순간의 행위가 남기는 흔적을 통해 삶의 구조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 지점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회화에서 구축해온 시간성과 조형적 흐름을 실제 공간 속으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최근의 작업은 이러한 다층적 삶의 구조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변형되는지를 관찰하는 데 집중한다. 구체가 남기는 흐름, 창 구조가 조직하는 시점, 먹의 레이어가 만들어내는 시간적 압력, 신체의 흔적이 개입하는 순간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나는 삶이 단순한 연속이나 선형적 과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과 감각이 중첩되는 비선형적 구조임을 사유해보고자 한다.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탐구는 앞으로의 작업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 박영환 (2026)

박영환 개인전 《Immaterial: What Remains》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서, 한때 선명했던 생각이 서서히 빛을 잃고, 사건이 시간의 층 속으로 가라앉은 뒤 —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된다. '무엇이 남는가.'

이번 박영환 개인전 《Immaterial: What Remains》는 사라짐 이후에도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 어떤 감각, 형태를 잃은 뒤에도 지속되는 시간의 밀도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는 전시이다. 작가는 화면 위에 남아있는 형상 대신,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상태를 응시한다.

박영환 작가는 먹과 한지를 기반으로 작업해온 한국화 전공 작가다. 그러나 그의 회화는 전통 동양화의 재현 방식이나 화면 구성과는 분명한 거리를 둔다. 화면 위에 등장하는 검은 구체는 산수나 건축적 공간 속에 이질적으로 배치되며, 관습적인 풍경의 질서를 교란한다. 이 구체는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작가의 내러티브 안에서 현재의 경험과 감정, 생각과 사건을 응축한 조형적 단위다. 색이 얼어질수록 그것은 휘발되어가는 기억과 감정의 상태를 가리킨다. 화면은 사물을 묘사하기보다, 감정과 시간이 놓이는 밀도를 시각화하는 장이 된다.

먹은 한지에 스며들고 번지며, 형태를 고정시키기보다 흔들리게 한다. 축적과 번짐, 그리고 소거의 가능성을 동시에 품는 이 재료는 작가가 관심을 두고 있는 '비물질성(immaterial)'의 감각과 맞닿아 있다. 여기서 비물질성이란 물질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물질에 고정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화면 위의 형상은 분명 시각적으로 강렬하지만, 그것이 지시하는 것은 형태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응축된 시간과 감정의 흐름이다.

작가는 그동안 회화 작업을 기반으로 퍼포먼스를 병행해왔다. 화면에서 출발한 몸의 움직임은 회화의 행위를 시간 속으로 확장시키는 방식이었다. 그의 회화는 분명 수행적 감각이 잠재해 있다. 먹을 올리고, 덧입히고, 지워내는 반복적 행위는 결과로서의 이미지보다 과정으로서의 시간을 드러낸다. 회화는 완결된 오브제가 아니라, 사건이 지나간 자리에서 여전히 진동하는 상태로 남는다.

이번 전시에서 함께 선보이는 도판 작업은 이러한 작가의 관심을 또 다른 차원으로 확장한다. 도자기 판 위에 그려지고, 불을 거쳐 굳어지는 과정은 시간과 물질의 관계를 다시 한 번 환기한다. 불이라는 사건을 통과한 표면은 고정된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번짐과 응축의 흔적이 남아 있다. 사라질 것 같던 감정은 다른 형태로 전이되고, 휘발된 기억은 표면 아래에 잔존한다.

작가는 지금 자신의 작업이 하나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고 느낀다. 이미 형성된 조형 언어 위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을 반복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 조건을 다시 질문하는 시점. 검은 구체는 여전히 화면에 존재하지만, 그것이 놓이는 공간과 밀도, 관계의 방식은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이번 개인전은 완결된 선언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 가시화된 장에 가깝다.

《Immaterial: What Remains》에서 '남아 있는 것'은 물질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라진 감정 이후에도 남는 흔적이며, 한 작가가 자신의 언어를 통과하며 붙들고 있는 질문의 상태다. 화면 위의 구체가 점차 얼어지더라도, 그 자리를 지나간 시간은 지워지지 않는다. 남는 것은 형태가 아니라, 형태를 가능하게 했던 감각과 기억의 밀도다.

이 전시는 묻는다. 경험이 지나간 뒤, 감정이 휘발된 뒤, 작업이 하나의 국면을 넘어선 뒤에 — 무엇이 남는가. 그리고 그 남아 있음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다시 시작되는가.

/ 김정원 (맥화랑큐레이터, 2026)

| Education |

2024 Busan National University major in Korean painting

| Solo Exhibitions |

- 2026 Immaterial: What Remains (Gallery MAC, Busan) (Upcoming)
- 2025 Trace, Echo (Gallery h-u-e, Busan)
- 2024 8th Gallery MAC Young Artist Prize Younghwan PARK – White (Gallery MAC, Busan)
- 2023 The world that we've been in, the world that we've been looking at Staying us through the quiet day and night (Exhibition space Yeongyeong, Busan)
- 2022 When the water starts to dry (Modern Art Center, Busan)

| Exhibition curating |

2022 Win-Win Project (sponsor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 Selected Group Exhibitions and Art Fairs |

- 2025 ART Taipei (Taipei World Trade Center, Taiwan)
- 2025 Younghwan PARK, Myungjin LEE, Heejin JO – Parthenon of Units (Gallery Kabinett, Seoul)
- 2025 Kiaf SEOUL (Coex, Seoul)
- 2024-2023 10-200, Affordable Paintings (Gallery MAC, Busan)
- 2025 Islands Near and Far (Gallery MAC, Busan)
- 2025 Sejin KIM & Younghwan PARK – Parallel (THEO, Seoul)
- 2025 ART BUSAN (Bexco, Busan)
- 2025 Younghwan PARK & Shumu – Albescent (Gallery h-u-e, Seoul)
- 2025 ONE Art Taipei (Taipei, Taiwan)
- 2024 Kiaf SEOUL (Coex, Seoul)
- 2024 URBANBREAK (Coex, Seoul)
- 2024 ART BUSAN (Bexco, Busan)
- 2024 BAMA (Bexco, Busan)
- 2024 ONE Art Taipei (Taipei, Taiwan)
- 2023 Peace, Piece, Place (Gallery hue, Busan)
- 2023 Gift Vol.1 – Snow here, too (Sangsang Madang, Busan)
- 2023 Ulsan International Art Fair (UECO, Ulsan)
- 2023 Spring Break (Ezel Gallery, Busan)
- 2023 Notice (Sangsang Madang, Busan)
- 2023 Asiaf Artist Invitation Exhibition (Gallery Daon, Seoul)
- 2022 Win-Win (sponsor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 2022 Ulsan International Art Fair (Ueco, Ulsan)
- 2022 Wayusansu (Gallery Spring, Daegu)
- 2022 Make me dream of 2022 Busan Youth Art (Geumnyosan Station Gallery, Busan)
- 2022 Youth Writers' Exhibition – Itda (Haeundae Atelier/ Haridan Museum, Busan)
- 2022 Disappeared (Gallery Star, Busan)
- 2021 Jeonnam International Ink Biennale (Mokpo Culture and Arts Center, Jeonnam)
- 2021 Brain Science x Art Exhibition WAVE (Busan Science and Culture Base Center, Busan)
- 2021 Hell outside the cage (Complex Cultural Space, Freedom of Liberation, Busan)
- 2021 Mu_Uge (by date/Busan)
- 2021 Fit needs (Gallery 523 Kunst Dog)

| Performance |

- 2023 Gift Vol.1 Snow Here, too Opening performance (Sangsang Madang, Busan)
- 2023 Artist oenn x Parkyounghwan dj mix
- 2023 Notice Opening Performance (Sangsang Madang, Busan)
- 2023 Park Young-hwan's Individual Exhibition/Performance
Boundaries: Standing in the World We've Been to A world that stands by us still through day and night (Exhibition Space Yeongyeong, Busan)
- 2022 Win-Win Project Live Performance (Sponsor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 2022 Live Painting "Asiaf"
- 2021 Participating in the 2021 Lucola 'The Stranger Who Left Home' artwork video (Busan Cultural Foundation)
- 2020 'Art Wall Project' Live Painting (hosted by Busan Geumjeong-gu Office)

| Artist Statement |

The window in my painting is the boundary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The black spheres in the window mean life living in the present, and the white sphere implies death, the last point of life. The perspective of the viewer of the work consists of looking at the scenery outside the window from the creation, and the landscapes outside the window are the trajectories of life that have passed. Numerous presentations passed in each life have the shape of a faint sphere.

In other words, faint spheres are things like blurred memories, forgotten memories, and volatile emotions. So the snow in my work covers the past present. This is also the reason for using the expression technique of the eyes to erase the soaked ink. Works without windows are stories of each passing past moment in a faint sphere.